

# Eugene's FICC Update



## 유진투자증권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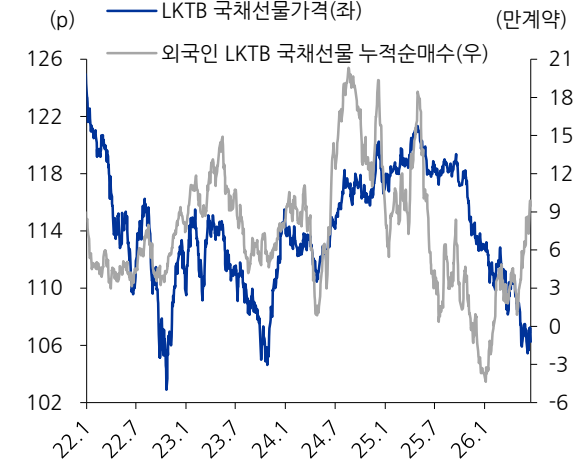
(단위: %,bp, 톱)

	6/19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784%	3.4	-2.4	83.1
	한국 국고채 10년물	4.171%	5.3	-2.4	78.6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8.7	36.8	38.7	43.2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2.94	-9.0	-42.0	-250.0
	10년 국채 선물(LKTB)	106.25	-49.0	-46.0	-667.0
	미국채 2년물	4.179%	-0.7	11.5	70.7
	미국채 10년물	4.455%	-3.5	-0.8	28.7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27.6	30.4	39.9	69.6
	독일국채 10년물	2.987%	6.0	-0.8	13.2
	호주국채 10년물	4.780%	0.5	-3.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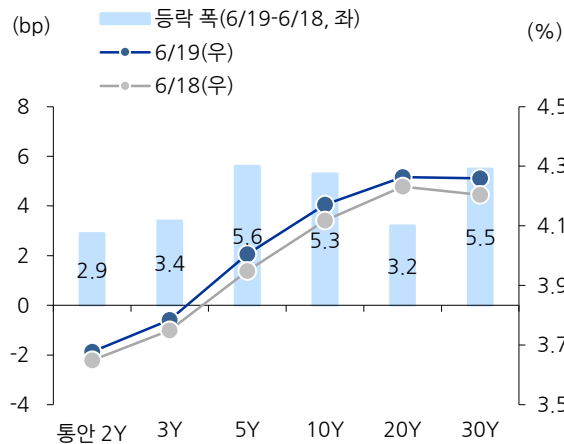
###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
- 매파적 FOMC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인상 우려 재부각된 영향. 오후 당국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환율 상승폭 반납에 따라 금리도 연동되며 움직임.
- 그 외 특별한 재료는 없는 가운데 종전 기대에도 국내 인상 우려 꾸준해 금리 상승 압력 지속.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노예해방일로 휴장.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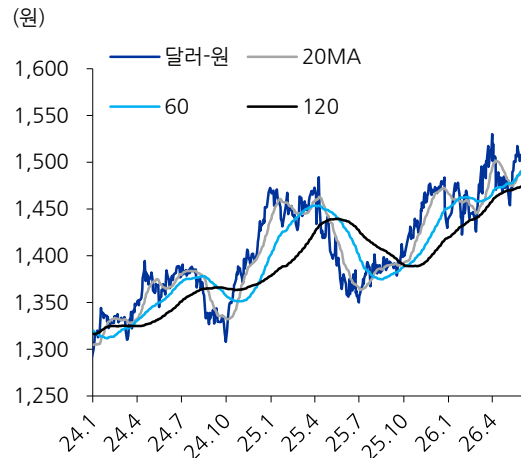


##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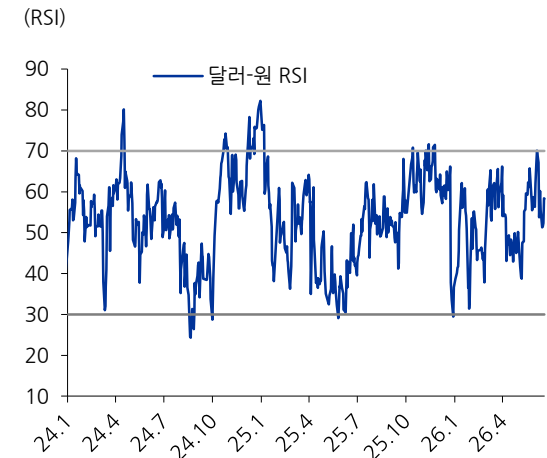
(단위: %, \$)

	6/19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527.00	0.0%	0.5%	6.1%
	달러지수	100.75	-0.1%	0.9%	2.5%
	달러/유로	1,147	0.1%	-0.8%	-2.3%
	위안/달러(역외)	6.78	0.1%	0.3%	-2.9%
	엔/달러	161.29	-0.1%	0.7%	3.0%
	달러/파운드	1.323	0.2%	-1.3%	-1.7%
상품	해알/달러	5.14	-0.5%	1.6%	-6.8%
	WTI 근월물(\$)	76.60	-0.2%	-12.7%	33.4%
	금 현물(\$)	4,158.73	-1.5%	-1.4%	-3.7%
	비트코인(\$)	62,945.00	-2.1%	-1.1%	-28.4%

##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달러 강세에도 외환당국 개입에 -0.10원 하락한 1,527.00원에 서울환시 마감(야간 1,531.00원).
- 달러인덱스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미-이란 제네바 회담 연기 영향에 아시아장에서 101pt를 상회하며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 그러나 오후 장 당국 개입 추정 물량 출회되며 환율은 하락 반전.
- 달러-원은 종전 서명에도 주간 +7.2원 상승.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시점 등 중동 불확실성 남아있고, FOMC 이후 연준 인상 우려 반영됨.
-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 명확하고, 외국인이 국내 증시 순매수(주간 코스피 +2.5조원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원화 가치 안정에 긍정적. 그러나 연준 인상 기조 확인하며 환율 하단이 다소 견고해진 것으로 보임. 증시 자금 유출 완화의 지속성 또한 주목할 필요.

##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6/19일) 소폭 하락(DXY -0.1%).
- 달러인덱스는 미-이란 양국의 MOU 서명에도 매파적 美 FOMC 반영되며 주간 +0.9% 상승. 점도표상 회의 참석자들의 26년말 기준금리 전망 중위값은 3.8%(1회 인상)로 상향됨.
- 미-이란 종전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음. 20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고 이란 군은 이를 빌미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주장. 양국이 합의한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 종료 선언이 있음.
- 달러 향방은 금주 협상 관련 추가 소식과 美 5월 PCE 물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 연준의 매파적 기조 확인 이후 물가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더욱 높아질 것.